

# “문인화 그리며 포도농사” ... 붓·흙과 함께 멋진 노후

## ■ 화순 능주면 김병숙 화백

화순군 능주면 만인리에 사는 김병숙(70) 씨는 포도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자 문인(文人)이라는 호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견 문인화가이다.

10년 전 32년간의 경찰공무원 생활을 끝마친 김씨가 선택한 ‘인생 2막’은 전원 속의 삶이었다. 어릴 적 그림에 대한 꿈을 잇기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78년 ‘연진회 미술원’ 제 1기생으로 들어가 매주 월~토요일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퇴근 후 문인화 수업을 했던 그였다. 전남도경 수사감식분야 등 주로 내근을 하며 남는 시간을 활용해 창작을 병행하다 한천파출소장을 끝으로 지난 98년 9월 정년 퇴직했다.

김 화백은 “승진은 포기하고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라며 “문인화는 사실적이기도 하지만 발묵(潑墨=먹 번짐)이 오묘해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연진회 미술원 졸업 후 본격적으로 붓을 잡기 시작해 제 29회 국전(1980년) 입선을 시작으로 한국전통미술 대상전 대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고 국전 초대작가·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을 그림에 정진해 왔다. 호 둔전은 고향인 여수 돌산 둔전에서 따온 것이다.

김 화백은 정년을 3년여 앞둔 95년 만인리에 73㎡(22평) 규모의 벽돌집 농가를 장기대출금을 안고 구입, 평소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했다.

그 뒤 벽돌집을 198㎡(60평) 규모로 증축하면서 화실을 만들었고,

집 뒤편 밭 3천360여㎡(1천100여평)를 구입, 2003년부터는 포도농사를 시작했다.

김 화백은 “우연한 기회에 포도농사 하시는 분을 보니까 좋아보여 시작했는데 묶어주고, 숙여주고, 끊어주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하는 한편 선진농가를 방문하고 농협중앙회 농민교육원에서 기술교육을 받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포도재배 경력이 그리 길지않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부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포도인 ‘둔전 포도’를 출하하고 있다. 올해 역시 비가림 시설을 새로 설치했으며 900여 그루에서 뻗어나오는 포도 새순을 끈으로 묶고, 불필요한 순과 덩굴손을 일일이 제거해주느라 땀별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화백은 “당도를 높이고 병해충을 없애려면 그루당 13~15개 잎을 확보해 줘야 하고, 적기 퇴비와 부족한 토양 영양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라며 “그렇지만 포도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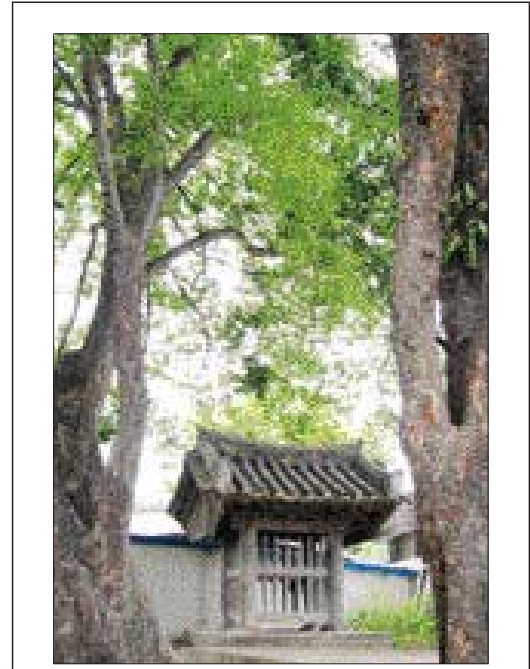
따로 시간을 정해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느낌’이 올 때는 밤새워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김화백.

그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며칠이고 붓을 잡지 않는다. 또 바쁜 와중에도 화순문화원에서 매주 금요일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문인화 교실’을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작업실인 ‘둔전 화실’은 목향이 가득하다. 한지를 펴고 붓에 먹을 듬뿍 묻혀 허위허손을 날리면 백지속에서 고아한 난이 잎을 늘어뜨리고, 달빛속에 고목의 매화가 꽃을 피운다.

김화백은 내년에 무농약 포도재배를 시도할 생각이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전원 속에서 ‘흙과 붓’을 통해 한발 한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마을 입구 느티나무숲·열녀각

### ■ 만인리는 어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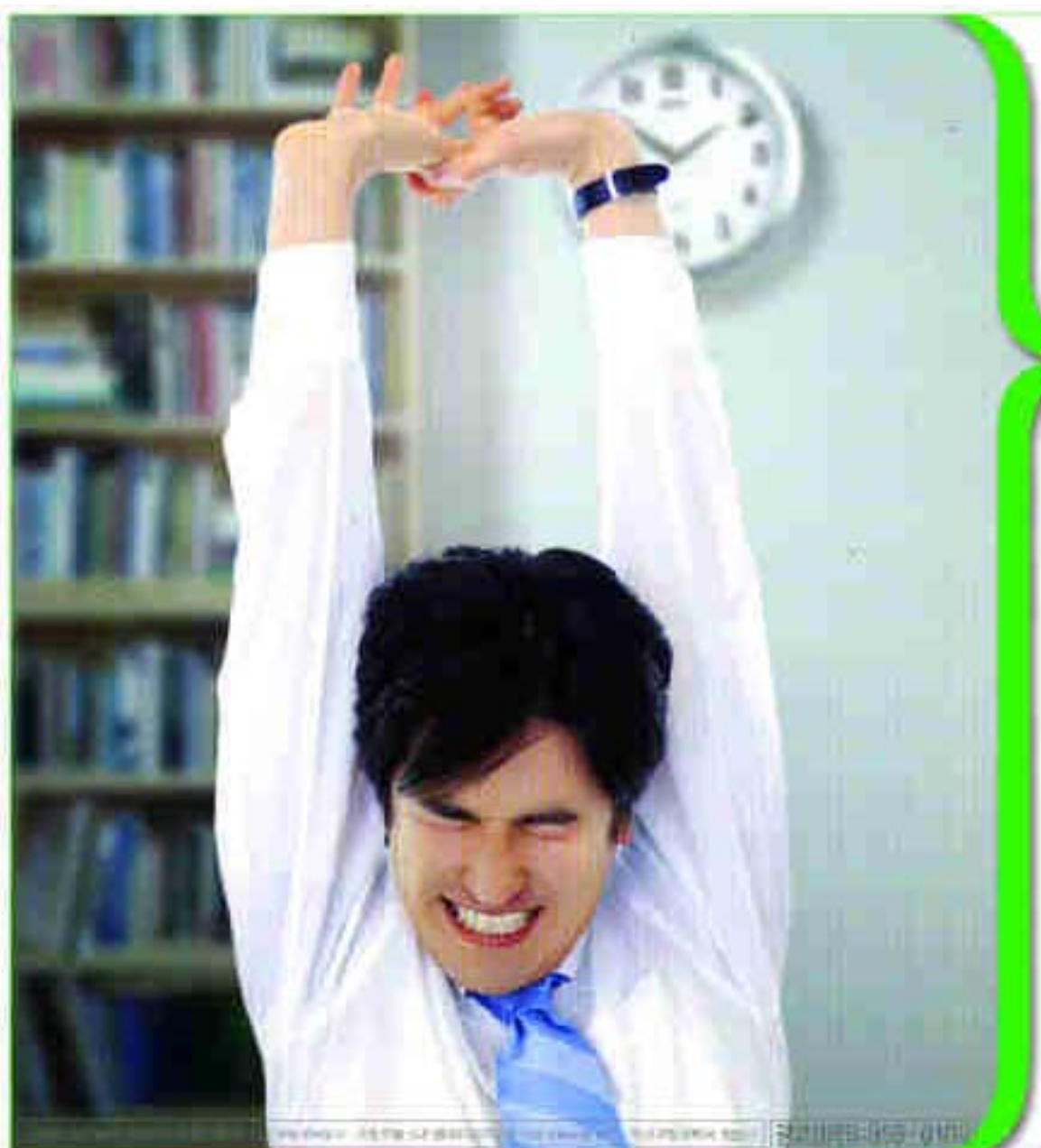
화순 능주읍에서 2.6km가량 떨어진 만인리는 인량동(仁良洞)과 만세동(새터굴) 등 2개 자연마을로 구성돼 있다.

만인리는 만세동의 만(萬)자와 인량동의 인(仁)자를 취해 붙여진 이름이다. 풍수지리 상으로는 ‘새가 날면서 나무를 쪼는’ 비금탁목(飛禽啄木)형국이라 풀이한다.

1546년께 장흥 고씨 고광위(1524~1620) 선생이 입향했으며 현재 능성 구씨, 광산 이씨, 전주 이씨 등 72가구 170여명이 살고 있다.

마을입구에는 300여 년생 느티나무와 회화나무가 작은 숲을 이루고 있으며, 그 옆에 조선 정조 18년(1794년) 양성 이씨 부인을 기려 세운 열녀각(사진)이 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는 ‘디딜방아 액막이’가 있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밤중에 물레 서쪽마을인 천덕리에 가서 디딜방아를 가져다가 마을입구에 거꾸로 세워놓고 고쟁이를 썬 액막이를 했다고 하나 현재는 맥이 끊겼다. /송기동기자 song@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증처럼 풀리지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벽, 오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항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E, C, K, P,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엽산, 나이아신, 판토텐산, 인오신,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엽산, 나이아신, 판토텐산, 인오신

제품문의 080-022-1010(수선자투금) www.aronamin.com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 흡수가 잘 되는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E, C, K, P,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엽산, 나이아신, 판토텐산, 인오신

**비타민 C 1200mg**  
1일 2회이면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

\*1일 2회 복용하세요